



**GP GLOBAL PARTNERS**

후원안내  
 한국 | 하나은행 990-090820-346  
 예금주: 장인성/ 장에스터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TEL: 02-443-0883

미주 |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www.gpusa.org  
 Pay to the order: GP USA  
 Memo: Chang In Sung

파송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  
 rebekah102603@yahoo.com  
 카카오톡ID rebekah102603

**Perú  
Tacna**

Chang In Sung, Chang Esther  
 MISION SHAMMAH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5 월의 선교편지

시 136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작은 딱나 마을에서 주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증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아레끼빠 Mision Shammah 리더 수련회**



1 월에 리더들과 함께 페루의 제 2 의 도시 Arequipa 에 가서 3 박 4 일동안 함께 신약을 읽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동안 감추었던 아픔들을 나누며 울고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년을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깊은 교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웃고말씀을 나누면서 주안에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올해부터 **빌라빌라**(어촌)과 **삼마**(농촌) 아이들에게 매주 샌드위치와 Yogurt, 과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촌과 농촌 두 곳 모두 매우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인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양을 신경쓰지 못해서인지 딱나 보건서 기록에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폐병이라고 합니다. 주중에도 늘 빵과 우유를 준비해 놓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먹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이들 사역때 특별히 맛있는 햄과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줍니다. 아침 일찍 오는 아이들은 모임 시작 하기전 아침도 먹고 공부후 간식으로 또 먹을 수 있기에 많은 아이들이 아침 일찍이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때 마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주는 빵을 먹기위해 한번도 앓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갔던게 생각이 납니다. 나눌수 있는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중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음식이나 생활품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3 월이 되면 아이들 새학기 학용품 준비에 집집마다 비상입니다. 학교 시작하는 첫주에 일년



동안에 쓸 모든 학용품, 교복, 운동화를 다 사야하는데 가난한 가정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빌라빌라에 Diego 와 Yair 은 아빠가 몇년전 돌아가시고 엄마는 알콜중독으로 5 년전에 아이들을 시로부터 6 개월간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디에고와 자일을 고아원에서 만났는데 두 아이가 다 글을 몰라 따로 개인교습을 하는중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따라가 매주 공부를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그 일이 지금 빌라빌라에 사역이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인도하심은 놀랐습니다.

디에고는 지금 12 살입니다. 개구장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아 늘 어둡습니다. 얼마전 어부 아저씨들을 도와준 댓가로 받은 용돈을 엄마에게 주면서 3 월에 학용품을 사는데 보태라고 드렸는데, 엄마가 술 마시는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속쌍해 하는 아이를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다음주에 애들 엄마를 찾아가 어떻게 엄마가 그렇수 있냐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다시는 술을 앓마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애들 엄마는 원래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또 속는다 생각하고 아이들 학用品을 사줬습니다. 엄마는 아무 생각이 없이 받고, 아이들은 이제는 학교에 걱정없이 갈수 있다고 얼굴이 활짝 펴지네요. 걸으로는 천방지축 같이 보이고 문제 아이 같으나 단체 사진을 찍을때는 늘 얼굴을 가리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가끔씩 잘못을 하면 따로불러 설명해 주고 손잡고 기도하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고 음식을 더 챙겨 먹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는가 봅니다... 삶이 고달프고 사랑이 고파서겠지요. 엄마가 있어도 없는듯 사랑의 결핍과 배고픈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치료되길 소망해봅니다.

**농촌 Sama:** 사역은 3 월말에 현지인 목사님에게 완전히 넘겨드렸습니다. 현지인 Elisario 목사님이 우리 사역에 도전을 받아 작년에 교회를 지어 1 월 부터 아이들 모임과 주일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Mision Shammah 에 나오는 아이들)을 이제는 목사님께 다 맡겨야 할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감사한 것은 삼마에서 미션 삼마에 나오던 YANIRA 가 올해 딱나에 **UTP 사립대학**을 들어가면서 친구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성경공부를 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CABITOS:** 지난달 부터 가정복지센터에 어르신을 섬기는 사역을 다른 한곳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더들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에 두 사람이 한팀이 되어 어르신들에게 성경공부와 찬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지창조 연극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UPT 대학교:** 대학교안에 작은 기독교 모임(CBU 대학성경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저희도 그 모임에 동참해서 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서로 힘이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주에는 학생들을 저희 사무실에 초대해서 라면과 한국 커피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은 맛있는게 있어야 소통이 잘 됩니다.

감사하게도 요번에 Mision Shammah 에 새로운 리더들 몇명이 더 들어와 소년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성경공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12 년째 함께한 자매 7, 8 년 또는 4, 5 년 함께하는 리더들 모두가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잘 해나가는 모습에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섬겨주신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Vila Vila 어촌에서 드러지는 주일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2. 소년원 오후 주일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3. 농촌 INCLAN 학교에서 Mision Shammah 어린이사역을 할 수 있도록
4. UPT 대학교의 대학기독교단체인 CBU 와 함께 캠퍼스사역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5. 자녀들 (샬롬, 죠이스, 베키)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